

“세상 비할데 없이 높고 큰 산”... 고려사 첫 등장



국립공원관리공단은 7일 이번 주말 국립공원 나들이 명소로 '무등산 역사밭'을 추천했다. 공단은 “역사평원 너머로 우뚝선 천왕봉과 입석대, 서석대 등의 풍경이 일품이며, 신선의 기분마저 느낄 수 있는 산행이 될 것”이라고 추천평을 올렸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무등산을
세계의 국립공원으로**

광주일보 창사 61주년 캠페인

㉔ 이름 변천사

국립공원 무등산(無等山)의 이름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어떤 이는 등(等)의 뜻을 등급으로 해석해 ‘등급이 없는 산’이라고도 하고, 무등산의 수많은 사찰과 고승의 전설에 비추어 ‘부처님은 가장 높은 자리에 있어 견줄 이가 없이 높다’는 뜻의 불교어인 ‘무등등(無等等)’에서 왔다고 보는 이도 있다. 또, 무등의 등을 ‘견줄 등(等)’으로 풀이해 ‘세상에 무등산과 견줄만한 산은 없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라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송강 정철은 무등산 자락 식영정 등에서 지은 성산별곡에서 ‘천변에 떠있는 구름 서석을 집 삼아’라고 했다.

◇무당산=옛 광주 토박이들은 무등산을 무당산으로 불렀다고 한다. 19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중심사 뒤쪽에 무당들이 움막을 친 무당굴이 있었고, 무등산 곳곳에서 무당들의 구판이 벌어지기도 했다. 무등산 연구가들은 당산을 신성시하던 토속 신앙 시절 무등산을 신산으로 보고 무당산으로 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무덤산이란 이름으로 불렀다는 설도 있다. 사방 어디에서 보나 형상이 비슷하고 등성이에 변화가 없는 모습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누구보다 무등산을 아꼈던 육당 최남선은 “무덤산이라는 부정적인 명칭을 썼을 것 같지 않다. 무당이 와전된 것”이라고 했고, 이는 상도 “예부터 무등산에 무덤만 써도 부정한다고 여기며 신성시했던 만큼 와전된 명칭으로 보인다”고 했다.

◇무정산=무정산이란 이름은 조선 중기인 태조 이성계가 연관 있다. 이성계가 왕으로 등극하기 전 여러 명산에 왕이 되게 해달라고 간청했는데 무등산 산신만이 그 소



1988년 10월 3일 민간 단체인 '광주민학회' 주관으로 무등산 중심사와 중머리재 사이에 있는 천제단에서 수십여명의 시민들이 모여 개천제를 지내고 있다.

무진악→서석산→무당산→무정산→무등산 사찰·고승의 전설 등 수백년간 해석 거듭

무등산의 이름에 대한 해석을 하려면 그 끝이 없을 정도로 방대하다. 무등산이 기록된 역사기록만 보더라도 삼국시대 이전부터 진산으로 숭배를 받아왔다는 기록이 있을 만큼 긴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그만큼 이름도 많고 그 이름을 해석하는 의견도 다양하다. 무등산을 이르는 옛 명칭에는 무진악, 서석산, 무당산, 무정산 등이 있다. 역사기록을 바탕으로 무등산의 이름 변천사를 살펴본다.

◇무진악(武珍岳)=무등산의 이름이 역사 기록에 처음으로 나타난 것은 삼국사기다. 삼국사기 잡지 제5지리편을 보면 광주의 옛 이름인 무진주와 무주라는 지명이 있고, 잡지 제1제사편의 소사조에 무진악, 무진주라는 이름이 나온다. 당시 무진주·무주(광주)의 진산인 무등산을 무진악 또는 무악으로 부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무주가 광주로 바뀐 것은 940년(고려 태조 23년)이다.

◇서석산(瑞石山)=무등산이 서석산으로 불린 것은 고려 때로 추정되고 있다. 고려사 지리지(1451년)는 ‘무등산’으로 표기하고, ‘무진악 또는 서석산이라고도 한다’고 명칭의 유래를 기록하고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1530년)은 ‘이 산 서쪽 양지바른 언덕에 돌기둥 수십 개가 즐비하게 서 있는데 높이가 가히 백척이나 된다. 그래서 산이름을 서석이

원을 거절해 왕명에 불복한 ‘무정한 산’이라 지칭한데서 비롯됐다는 전설이 전해온다. 실제 이성계는 나라를 세운 뒤 국내 명산의 산신들에게 제사를 올리고, 자신의 손에 죽은 고려말 신하들의 원혼을 달래주는 한편 조선왕조의 변창을 받았다고 한다.

◇무등산=무등산이란 명칭은 서석산과 함께 고려 때부터 부른 이름으로 무물, 무돌, 무진이라 부르던 것이 무등산으로 바뀐 것이라는 게 무등산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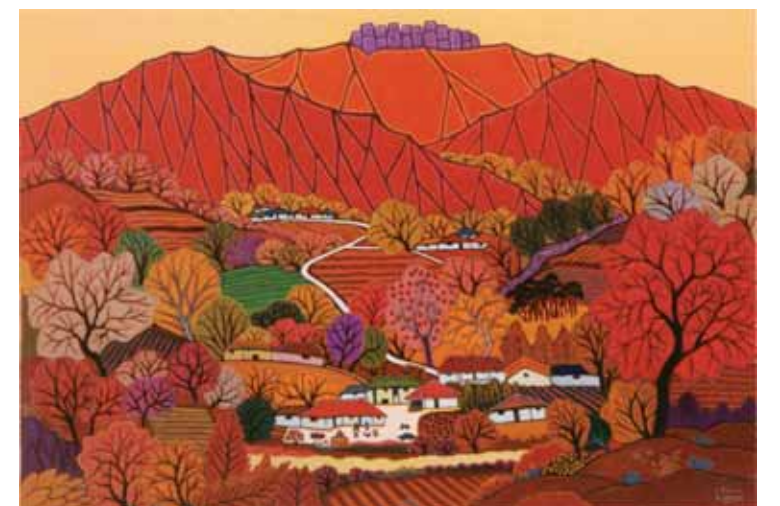
무등산의 어원에 대한 몇 가지 설을 살펴보면, 무등은 무물의 이두음이다. 신라 때 우리말을 한자로 묘사한 향찰식 표기법으로 ‘무진’과 ‘무등’은 모두 ‘무물’을 일컫는다. 이 무물은 옛 농경사회의 혼한 지명인 ‘물뚝’이라는 뜻과 옛말의 조어인 ‘무지개를 뿜는 돌’이라는 뜻에서 기원했다는 설이 있다. 또, 한때 무당산으로 불리면서 ‘당산’과 비슷한 한자 음을 따서 무등산으로 나타났을 가능성도 있다.

일부에서는 사찰 및 고승들과 얽혀있는 전설이 많은 무등산의 특성상 불교적인 이름일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바로 불교어인 ‘무등등(無等等)’으로 부처님은 가장 높은 자리에 있어 견줄이가 없다는 뜻에서 이름을 가져온 것이라는 것이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무등산 갤러리

이신자 작 '무등산' (2011년)
캔버스에 오일(60.6 x 72.7cm)

“무등산에 가을이 찾아들었다. 가을은 무등산과 가장 잘 어울리는 계절이라고 생각한다. 가을에 산을 물들이는 짙은 붉은 색과 갈색에서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무등산에 포근하게 안긴 광주의 가을 풍경을 담았다. 푸근한 어머니의 산 능선 아래로 펼쳐지는 작은 시골 마을의 아기자기한 집과 뛰노는 사람들은 어쩌면 우리네 삶의 모습과도 닮았다고 할 수 있다.”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돌잔치, 피로연, 칠수연, 세미나, 각종행사
(100석, 90석, 68석 40석28석, 16석 물완비)

구분	영업시간	성인(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5~7세)
평일	11:30~22:00	25,000원	12,000원	8,000원
토·일·공휴일	11:30~22:00	29,000원	18,000원	12,000원

유스퀘어 2층 예약 및 문의 : 062)671-1199

YONAMJA 유스퀘어점

매콤한 오남자 필라프
YONAMJA Spicy sauce pilaf ₩7,900

핫 스파이시 오렌지 소스 포크 스테이크
Hot Spicy Orange Sauce pork steak ₩10,800

몽골레
Mongolian ₩10,800

밀라노식 허브 크리스피 치킨 스테이크
Milano-herb crispy chicken steak ₩10,800

허니고곤졸라 피자
Honey gorgonzola pizza ₩12,900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 : 062)673-7979